

법정 처리시한 넘기나... 선거구 획정 논의 40일 넘게 개점휴업

새정치 초·재선 “정개특위 가동...조속 확정을” 새누리 중진들 “여야 지도부 대승적 결단 필요”

여야 “획정 서두르자” 한목소리

‘총선 전 5개월’로 규정된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1월13일)이 5일로 일주일여를 남기고 있지만, 선거구획정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에서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새정치민주연합의 혼선 탓’이라고 몰아붙이며 야당 지도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은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정치개혁특위가 4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라며 “이대로 가면 선거구 실종이라는 의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선거구 획정을 시한 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정개특위의 여야 간 사간 협의내용을 분석해보면 큰 차이가 없었다”며 “야당이 이 내용을 협상의 판에 올리지 않는 것은 친노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박민석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운재선입니다’에 나와 “디테일(세세한 부분)은 사실 다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고 핵심적인 부분, 의원정수나 비례대표 숫자, 농어촌 지역에 몇 석을 배려할 것인가. 이게 다 연결된 딱 하나의 마지막 남은 숙제다. 그 부분만 해결

되면 2~3일 안에도 본회의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 야당이 특히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비례대표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으니까 정개특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인 결단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인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 소속 농어촌 의원들이 의석수를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문재인 대표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며 “당내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입으로는 교과서 반대만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내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서두르자는 의견이 터져나왔다.

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11월 1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좋은미래는 “현역의원의 지역구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선거구 획정이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법적 처리시한을 넘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속히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기존의 합의와 원칙에 근거해 현행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좋은미래는 또 국회 정개특위 활동과 관련 “선거구획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다른 정치개혁 법안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활동 시한인 11월 15일까지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관계법 개정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등 돌린 여야...난감한 의장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새정치민주연합 이종철 원내대표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회동에서 악수를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국정화 투쟁·민생 병행

지역위원장 연석회의...국회 정상화 협의 오늘 재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원내의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 교과서 저지 투쟁은 지금부터 더 가열하게 시작될 것”이라며 “하지만, 민생을 돌보는 일도 중요해 (투쟁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지역위원회 등 원내(院外) 활동을 통해 대국민 홍보전을 벌이며 국민 여론의 지지를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내(院內)에선 연말 ‘예산국회’에 집중, 민생·경제현안을 챙겨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반영하듯, 정의화 국회의장과 중재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최종적인 합의점은 마련하

지는 못하고 6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 직후 유이동 새누리당 대변인과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오전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면, 회동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혔다”며 “6일 오전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조만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 늦어도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즉각 철회, 황교안 국무총리 사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내년 예산심의 단독 강행

새정치 의원들 퇴장 속 국회 예결위 사흘만에 반쪽 재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사흘 만에 ‘반쪽’ 상태로 재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예정됐던 비(非)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강행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 개시에 앞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촉박해서 합리적인 논의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며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더 박차를 가해 예산 심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국정화 예비 편성 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전향적인 결정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예결위를 비롯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농성을 벌여 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 들어왔으나, 여당의 단독 진행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만 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 간에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지 이견을 조율하는 길로 안다”며 “그때까지 회의의 진행을 참아주면 이번 예산 심의가 좀 더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고 정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이 문제(역사 교과서)를 외면한 채 나라 살림살이를 다루는 것도 옳지 않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과 관련해 종합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정상적인 예결위 진행은 바르지 않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을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며 “(회의에) 정부 사람들 나오게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나오게 했다. 야당이 오후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하게 하라”고 회의의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퇴장한 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본 질의를 시작하면서 예결위는 여당 단독 진행 형태로 재개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옆자리에 누가 앉더라도
당신의 비행이 편안할 수 있도록**

창가석에 앉아도 바로 통로로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프레스티지 클래스의 좌석, Prestige Suites— 이제, 대한항공에서 절대적인 프라이버시를 경험하십시오.

- ▶ 더 조용해진 좌석 더 넓은 칸막이 & 전 좌석 직접 통로 연결
- ▶ 더 편안한 좌석 더 넓은 공간 & 180도 펼쳐지는 침대형 좌석
- ▶ 특별해진 좌석 더 커진 모니터 & 최신 AVOD 시스템

2014.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항공사